

‘소리도 없이’ 유아인 “기대하는 이미지 배신하고 싶었다”

“감사하게도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기대하는 바를 재밌게 배신하고 싶었다. 이전의 유아인도 충분히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그동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꺼내 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다.”
배우 유아인이 영화 ‘소리도 없이’로 돌아왔다.

신인 감독의 색다른 범죄 영화에서 연기 인생 처음으로 대사 없이 극을 이끌었다. 생활 연기를 위해 식발 투혼은 물론 15kg의 체중 증량까지 외적인 변화도 꾀했다. 13일 삼청동에서 만난 유아인은 ‘소리도 없이’ 첫 만남을 떠올리며 ‘변화, 도전, 책임감’이라는 말을 되뇌었다. 그는 “영화는 공동작업이고 그 안에도 질서가 있는데 도발적인 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내 모든 걸 다 던지고 싶다고 느끼게 하는 제안이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신인 감독이 어려운 여건에서 나아갈 방향을 보여줬다. 반가워하고 환영했으면 한다”며 “작품에 대한 호불호가 갈릴 것이라고 하는데 호불호가 없다면 새로운 도전은 어려운 것 같다. 호불호를 만들고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객들도) 새로운 목이 마를 것이다”고 기대했다.

영화는 묵묵하게 범죄 조직의 뒤처리를 하며 근근이 살아가던 ‘태인’(유아인)과 ‘창복’(유재명)이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이야기다.

독특한 캐릭터 설정과 아이러니한 스토리 구조에 주안점을 둔 작품으로 기존 범죄물과 차별화를 뒀다.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SF 단편 ‘서식

범죄 현장 청소부로 유재명과 호흡

현실 연기 위해 식발에 15kg 증량

“배역 넘어 작품에 대한 책임감 느껴”

지를 선보였던 홍의정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유아인은 홍 감독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냈다. “시나리오가 놀랍고 소경했다”는 그는 “홍의정 감독에 대한 기대감에 출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놀랍고 충격적이었다. 아주 극적이거나 드라마틱하지 않은, 일상적일 수 있고 익숙할 법한 이야기를 조합해 마음을 자극하는 데 이끌렸다. 과한 의미 부여를 해서라도 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은 작품이다. 새롭다는 것만으로 끌리지는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나아가는 것에 희망이 존재하고, 고민하는 지점을 제시하는가를 짚어줬을 때 홍의정 감독이 만든 이야기와 메시지 방향성이 충분히 기대할만하다.”

이번 작품은 특히 “함께하는 공동작업의 결실을 기대하게 한 작품이다”고 기억했다.

신인 감독과의 작업은 책임감도 느끼게 했다.

“수평적인 구조에서 배우와 감독, 스태프가 대등하고 평등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만족스러운 작품이다.”

그는 “현장에서 ‘너무 좋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면서 “영화가 만든 성취를 통해 더 나은 작품을 기대하는 작품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싶었다”고 했다.

“과거에는 내 배역만 책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감독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지켜내고 싶었다. 어떤 작품이 제작되고 소개되는 일련의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러한 책임감을 감당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작품이었다.”

배우 유아인의 필모그래피에도 의미는 남다르다.

특정한 이미지에 갇힌 배우가 아닌 입체적인 인물로 남고 싶다는 바람이다.

“지루하던 찰나에 이 작품에 들어왔다. 어떠한 것도 단편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전체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배우의 몫이라는 점에서 릴레마가 있다. 한 작품 나아가면서 퍼즐들이 모여서 아주 입체적인 인물이 만들어진다. 아직도 노출되지 않는 다른 퍼즐이 있다.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면을 보여주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대사 없는 인물을 연기하며 표현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유아인은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일상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반면 유아인은 방송이 만들어낸 영향력이 틀림없이 존재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투철하지 않으면 위험한 일이라고 느꼈다고 했다.

“유아인 컬렉션이 생기고 내가 하는 것이 유행하는 데 반기고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



다. 파괴력이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것은 영향력은 큰 가치인데 그것을 더 잘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한다.

한다. 나의 솔직함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불씨가 됐으면 한다.”

뉴스



박찬욱, 영화 ‘헤어질 결심’ 탕웨이 캐스팅

박해일·이정현·고경표·박용우 호흡...이달 촬영

박찬욱 감독의 신작 ‘헤어질 결심’에 탕웨이, 박해일, 이정현, 고경표, 박용우가 캐스팅됐다.

배급사 C엔터테인먼트는 ‘헤어질 결심’의 주요 캐스팅을 마무리하고 이달 촬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영화는 산에서 벌어진 변사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 ‘해준’(박해일)이 사망자의 아내 ‘서래’(탕웨이)를 만난 후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느끼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 ‘아가씨’, 영국 BBC 및 미국 AMC와 협업한 드라마 ‘빅 블루 리프’ 이후 새 작품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던 박찬욱 감독은 오랜 파트너 정서경 작가와 공동 집필한 ‘헤어질 결심’을 차기작으로 결정했다.

박해일은 예의 바르고 청결한 형사 ‘해준’ 역을 맡았다.

밤낮없이 사건에 매달리는 빈틈없는 성격의 ‘해준’은 사건 사망자의 아내 ‘서래’를 알게 된 후 조금씩 흔들린다.

‘서래’ 역의 탕웨이는 속을 짐작하기 어려운 미묘한 캐릭터로 극에 궁극성과 긴장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현은 ‘해준’의 아내이자 능력 있는 전문직 ‘정안’으로 분하고, 고경표는 ‘해준’을 형처럼 따르지만 수사방향에서는 이견을 지닌 후배 형사 ‘수완’ 역을 맡아 박해일과 호흡을 맞춘다. 박용우는 ‘서래’의 여정에 등장하는 또 다른 남자 ‘호신’이 된다.

병무청장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입국 금지할 것”

“미국 사람이라 ‘스티브 유’라 생각해”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병역 면탈로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가수 유승준씨에 대해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모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태희 의원의 질문에 “저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모 청장은 “(유씨는)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며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스티브 유는 송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송고하게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냐”고 했다.

이 의원은 “확고한 의견에 100% 동의한다”며 “이분이 만약 입국이 되고 지금까지 면탈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젊은이들이 좌절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기준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총영사관이 지난 7월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하면서 다시 소송을 냈다.

LA 총영사관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채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재외동포법 5조2항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유씨 측은 소송에서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씨의 입국을 이제 허용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위기도 혼란도 초래되지 않는다”며 “유씨는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정치인이나 재벌도 아닌, 약 20년 전에 인기가 있던 일개 연예인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했다.

뉴스

박서준, 지구 환경보호 캠페인에 목소리 재능기부

세계자연기금(WWF) ‘리텍스타일’ 캠페인 영상 내레이터로 참여



배우 박서준이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에 목소리를 재능기부했다.

13일 비영리 국제자연보전기금인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박서준은 지속 가능한

패션 확대를 위한 이 단체의 ‘리텍스타일’ 캠페인 영상 내레이터로 참여했다.

박서준은 자연 순환과 가치 소비(Conscious consumption)를 통해 섬유패션업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자는 캠페인 메시지를 특유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전달했다.

그는 지난 2017년부터 WWF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리텍스타일(Re:Textile)’ 캠페인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섬유패션산업계의 시장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박서준이 참여한 캠페인 영상은 섬유패션업계의 자연훼손 현실과 심각성을 알리고, 원단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담았다.

박서준 외에도 배우 배두나와 오지호가 목소리 재능기부에 참여했다.

배우 김선호와 모델 안승준, 선혜영 등은 캠페인 취지에 공감해 응원에 동참했다.

캠페인 영상은 WWF-Korea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펜타곤, 8개월 만에 미니 10집...‘위드’ 발매

그룹 ‘펜타곤’이 지난 12일 오후 6시 미니 10집 ‘위드(WE:TH)’를 발매했다.

타이틀곡 ‘데이저’는 강렬한 사운드가 돋보이는 얼터너티브 록 장르의 곡이다.

이별 뒤 누구나 겪었을 법한 아련하고 슬픈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한 가사가 인상적이다.

특히, 펜타곤 멤버 후이와 우석, 작곡가 네이슨(NATHAN)이 뒀다.

매 앨범마다 직접 프로듀싱에 참여하며

자체 제작물’이라는 수식어를 얻은 펜타곤은 이번 앨범 전곡의 작사·작곡에 참여했다.

펜타곤은 이번 앨범에 대해 “기대감과 걱정도 크지만, 좋은 음악 그리고 무대로 많은 분들께 펜타곤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덧 미니 10집까지 온 만큼 성숙하고 성장한 멤버들의 모습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라고 입을 모았다.